

# 장마철 대비 농작물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

농진청, 논 배수로 잡초 제거·비닐하우스 주변 물길 조성 등

13일부터 도농업기술원·시군센터 등과 합동으로 기술지원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장마철 호우에 대비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예방 및 최소화 관리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10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와 경상 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지성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13일부터 15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장기간 강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기술지원(27개반, 82명)을 실시한다. 논은 배수로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 물빠짐을 좋게 하고 물에 잠긴 벼는

물을 완전히 뺀 뒤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논두렁에 물길을 만들 때에는 비닐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산간지의 계단식 논에서는 물길을 여러 곳에 만들어 침수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밭작물과 시설작물의 경우에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이랑을 높게 하고, 비닐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든다. 특히 비가 그친 후에는 작물별로 미리 병해충 방제를 해야 생육 불량을 막을 수 있다. 논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으로 인한 쓰러짐을 예방하고, 많은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 뿌리가 노출된 경우 흙을 바로 덮어줘야 한다.

경사지 파수원은 집수구를 만들어 유속을 줄여주고, 부지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토양의 유실을 막도록 한다.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열매가지를 유인하여 묶어 낙과 피해를 줄이고, 나무 전체가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줄기에 삼각 받침대를 설치해 쓰러짐에 대비하도록 한다. 비·바람으로 잎·줄기가 많이 손상된 경우 병해충 방제와 제4종복합비료를 앞에 뿌려 강우 이후 2차 피해를 최소화 한다. 노후화된 축사는 축대와 지붕, 벽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미리 보수하고, 축사 내 환기를 자주하여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방지하고,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변질된 사료는 주지 않도록 한다.

/김윤상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비심리 회복에 '활력'

도내 전통시장 매출, 2주차 기준 세일 이전보다 50.2% ↑

지난 6월 26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중인 전국민 소비 불입 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소비심리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주 동안 온라인 기획전과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 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세일 기간 오프라인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 전통시장 실적은 동행세일 전주 대비 1주차(6.26~6.30) 매출 41.8%에 고객수 26.3%로 16개 시·도 중 가장 큰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동행세일 전주 대비 2주차(7.3~7.5) 매출은 50.2%에 고객수는 31.4%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한 전통시장 50곳 750개 점포의 동행세일 전, 후의 주간 매출액과 고객수를 샘플 조사한 결과 매출액 7.1%, 고객수 5.2%가 증가해 이번

동행세일 특유의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동행세일 지역행사는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개최됐으며, 전형적인 면

대면 거래(face-to-face)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가 타 업종에 비해 심각했던 전통시장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동행세일 행사에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더해져 도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 같다"면서, "동행세일의 조그만 낱앗이 내수활성화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행사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지막 3회차 지역행사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원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9일 완주군 소재 위봉산성체합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JB카드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여름생활'

전북은행, 내달 31일까지 이벤트... 에어팟 프로 등 경품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다가오는 휴가시즌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2020년 JB카드 슬기로운 여름생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썸머시즌에 맞게 온라인(홈)쇼핑, KTX(SRT), 장기 무이자할

부 등 JB카드를 다가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박소피가 망설여지는 요즘! 온라인(홈)쇼핑업종 누적 50만원 이상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Z Flip, 에어

팟 프로, 스타벅스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PAY 이용실적은 2배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사용 중인 JB카드를 PAY 서비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가올 여름 휴가에는 기차여행을 떠나 보는것도 좋겠다. JB카드 KTX(SRT) 승차권을 건별 5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며, 전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장기(부분)무이자할부까지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쇼핑에서의 혜택도 제공한다. △구판에서 건별 3만 원 이상 이용시 최대 5% J-Money 적립 △위메프에서는 디지털특가, 유아동특가, 위메프투어 등 카드 할인행사 △하이마트 온라인몰은 매주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0% 청구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및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banking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중기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업종별 중기 대표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9일 완주군 소재 위봉산성체합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 안남우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근영 전북지역본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허동욱 센터장과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지원기관 25명이 중소기업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도설명에 이어,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를 위해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요건 완화 △조선기자재기업 협동화 공장 신성장기반자금지원 요청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위한 홍보 요

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요청 등 5건의 현안과제가 건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두완정 전북지역회장은 "전라북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3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에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동업종·이업종 간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의 조기 수립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규모와 범위의 경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며, "도내 공공기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해외관료추진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한전 김제지사, '안전 스쿨존' 조성 시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지사장 라영균)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법 등) 시행과 관련해,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와 협업을 통한 '안전 스쿨존' 조성사업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한 달간 한전 김제지사는 김제경찰서와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전주 50기에 스쿨존 안내시트를 설치하는 안전 스쿨존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설치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과 '제한속도 30km' 안내시트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효과를 높여 제작됐다. 김제지사는 '안전 스쿨존' 조성사업 완료 후 김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안내시트가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영균 김제지사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최소화과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